코 관리 방심하면 감기에 '큰 코'

美 예일대 의대 연구팀

"감기 바이러스 저온서 증식

노출 심한 33도의 콧속 취약"

전문가 "마스크 상용이 예방"

추운 겨울철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코를 잘 모셔야 한다.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기 쉬운 코 속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감기예방에 가장 효율적인 만큼 전문의들은 마스크 착용을 일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미국 예일대학 의과대학 면역학과 연구팀은 감기를 일으키는 라이노 바이러스가 섭씨 37도의 심부체온(core body temperature)보다 훨씬 낮은 섭씨 33도의 코 속(비강)에서 효과적으로 증식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밝혀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심부체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자연면역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수월하게 증식할 수 있다고 연구를 주도한 엘렌 폭스먼 박사는 밝혔다. 이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코를 감싸라는 옛말이 근거 있는 얘기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쥐 실험을 통해 확인됐다. 연구팀은 쥐의 기도에서 채취한 상피세포를 심부체온인 섭씨 37도와 비강의 온도인 33도에서 각각 배양한 결과 낮은 온도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증식하고, 감염물질도 크게 증가했다.

또 쥐의 비강 내막세포를 두 온도에서 비교 관찰한 결과, 바이러스와 싸우는 단백질인 인터페론을 만드는 유전자가 높은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덜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온의 높고 낮음이 바이러스 자체만이 아니라 면역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을 지휘한 아와사키 아키코 박사는 설명했다.

이는 쥐 실험 결과이긴 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약 20%는 어느 때나 콧속에 라이노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만큼 귀담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 회보(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최신호에 발표됐다.

이와 관련 조선대병원 최지윤 이비인후과 교수는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발표 논문과 같이 코 속 온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만큼 겨울철에는 찬바람을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생활 습관이다"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연합뉴스

전남도 홈피 '이순신 소설' 인기 폭발

'이순신의 7년' 연재 시작

전남도가 지난 5일부터 도 공식홈페이지에 정찬주(61) 작가의 대하장편소설 '이순신의 7년' 연재를 시작했다.<사진>

'이순신의 7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호남의 장수와 의병, 이름 없는 민중의 역할을 복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해 노량해전에서 최후를 맞기까지 7년의 삶을 호남의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등 임진왜란 해석의 새 지평을 여는 작품으로 그려낸다는 계획이다.

'가을태풍'이란 소제목으로 첫 선을 보인 '이순신의 7년'은 1591년 9월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장면으로 시작된다. 태풍이 지나간 후 전라좌수영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장군이 휘하 장수들과 영내를 점고하는 장면과 임진왜란 초기에 맹위를 떨쳤던 거북선(귀선)을 건조하게 된 배경을 다루고 있다.

연재소설이 공개된 첫 날 550여 명이 접속하는 등 네티즌의 반응이 폭발적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충청도 사투리와 호남 장수들의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 재미있다", "마치 현장에 있는 듯 사실적이고 섬세한 표현이 압권이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노래영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의향 전남의 역사 현장을 재조명하는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발 벗고 나선 호남 민중의 의로운 행동을 재조명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독자 의견을 듣기 위해 작가와의 대화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연재소설을 보기 위해서는 전남도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네이버 뉴스홈에 접속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시의회 사무처장에 위길환씨

市, 고위직 70명 인사

광주시가 6일 위길환 도시재생국장을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승진·발령하는 등 서기관급 이상 고위직 7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22면〉

이번 인사는 애초 지난 30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광산구와의 인사 교류가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차례 연기됐었다. 그러나 광산구와의 인사교류는 끝내 마무리되지 않았다.

실·국장급으로 문화관광정책실장에 김효성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경제산업국장에 유용빈 환경정책과장이 임명되는 등 22명이 전보됐다.

부구청장에는 서구에 정여배 정책기획관, 남구 이병렬 공무원교육원장, 북구 차영규 교통건설국장 등이 발령됐다. 구청장이 구속 수감돼 공석인 동구는 지난 1일자로 임영일 일자리투자정책국장이 먼저 발령됐다.

안전행정국장에는 정민곤 서구 부구청장이 자리 옮긴 지 6개월 만에 제자리로 복귀했다. 전임 시장 시절 인사담당 국장을 다시 중용한 사례여서 이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준국장급으로 대변인에 김준영 교통정책과장이, 문화도시정책관 채영선 비서실장 등이 영전했다.

시는 전보 인사의 원칙으로 민선 6기 시정을 이끌고 갈 추진력과 전문성·업무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화합과 탕평의 인사가 되도록 힘썼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 광산구와의 인사 교류 협의 불발로 부구청장 인사가 누락되자 6일 오후 광산구는 '잘못된 인사교류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다. 광산구는 "지방자치법상 부구청장은 구청장이 임명토록 규정돼 있는 만큼 시가 부구청장을 파견하면 구는 무조건 따르는 관행은 법에 위배된다"면서 "최소한 3급 공직자와 4급 공직자의 1대1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견이 있는 광산구 부구청장은 추후 원만한 협의를 도출한 후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발령할 계획"이라면서 "일부 자치구에서 건의 또는 문제를 제기했던 시·자치구 공무원 교류에 대해서는 시·자치구 간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 진전된 협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던힐' 담배 13일부터 4500원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가 이달 13일부터 리뉴얼된 새 던힐 제품을 한시적으로 45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BAT코리아는 6일 기획재정부에 주력 제품인 던힐의 판매가격 신고를 마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던힐 6mg(옛 던힐 라이트)·던힐 3mg(밸런스)·던힐 1mg·던힐 프로스트 등 4가지는 13일부터 리뉴얼된 신제품이 한시적으로 4500원에 판매되고, 이후 4700원으로 값이 다시 조정된다.

기존에 소매점이 보유한 제품은 단종될 때까지 인상 전 가격인 갑당 2700원에 판매된다. 앞서 KT&G와 국내 시장점유율 2위인 한국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12월 24일 제품 판매가격 인상 신고를 마무리하고 이달 1일부터 에쎄·레종·말보로·팔리아먼트 등 주력제품을 각각 2000원 올려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시계탑 30년만의 귀향

광주시, 27일 옛 전남도청 앞 제막식

1980년 5·18민중항쟁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서서 역사의 현장을 지키다가 군부에 의해 농성광장으로 옮겨졌던 시계탑<사진>이 5·18 제35주년을 맞아 원래의 자리에 돌아온다.

광주시는 서구 농성광장으로 옮겨진 시계탑을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 광장)으로 7일 옮긴 뒤 대리석 마감, 시계 설치, '님을 위한 행진곡' 탑재, 안내판 설치 등 복원공사를 마무리한 후 오는 27일 제막식을 할 계획이다. 1980년대 중반 군부에 의해 옮겨진 뒤, 30여년 만에 제자리를 찾는 셈이다.

광주시는 시계탑 복원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따라 당시 관련자 증언, 5·18기념사업위원회 자문, 문화재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들여 시계탑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복원 과정에서 오월의 추모곡이자 민주화운동의 상징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능 기부와 자문을 통해 차임벨로 편곡해 매일 오후 5시18분에 울리도록 했다. 편곡은 바위섬을 작곡한 남부대학교 배창희 교수팀이 맡았다.

애초 이 시계탑은 1971년 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 광주개최를 기념해 광주청년회의소와 자매결연한 일본 청년회의소가 선물한 시계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상징 시계탑 복원이 5·18민주화운동 제35주년이 되는 2015년 광주의 희망찬 첫 걸음과 함께 광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의 답사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